

옛 명성 어디가고...광주 동구 인구이탈 가속

재개발에 이주 러시...지난해 10만명 붕괴후 8개월째 감소 4월말 9만7446명...내년 부구청장 직급 하향 조정될 듯

‘호남 1번지’ 광주시 동구 인구가 지난해 9월 10만명 선이 붕괴한 이후 8개월째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구는 오는 2018년까지 인구 감소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는 인구 10만명 붕괴로 동구 부구청장 직급마저도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서기관(4급)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동구 인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9만9879명으로 개청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10월 말 9만9641명, 지난해 12월 말 9만8784명, 2월 말 9만820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지난 4월 말에는 9만7446명까지 줄어드는 등 8개월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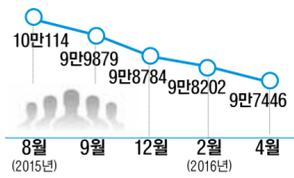
인구 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동구는 1980년 복구청 개청 이후 시행된 도심외곽 확장정책, 도청·시청 이전, 도심 공동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노후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집단 이주가 늘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구는 지난 3년 동안 재개발로 1474세대(3965명)가 동구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1500세대(4000여명)의 추가 이주를 예상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년 7월에는 부구청장 직급의 하향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동구 인구 감소 추이(단위:명)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인구 10만 미만은 지방서기관, 10만 이상~50만 미만은 지방부이사관이 맡게 되었다.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연속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해 7월1일에 직급이 하향되게 된다.

동구의 지난해 각 분기 말 산술평균 인구는 9만9856명으로 지방부이사관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올해도 2500여명이 이 기준에 부족한 상황이다. 동구 부구청장 직급은 지난해 1월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상황에서 3년도 안 돼 다시 하향 조정될 위기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방서기관이 부구청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 박탈감을 클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2019년 5000명에서 1만1000여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돼 10만명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인구유입책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구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2단계 경제조정 추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구는 5개 자치구 중 예산규모, 공무원 수, 의원 수, 동수 모두 최하위 수준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차 경제조정 당시 심의·의결된 2단계 경제조정안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식목일 구청에 묘목 판매

동구 부구청장 ‘중징계’ 결정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구청장 권한대행 기간 본인 소유 묘목 수백 그루를 구청에 납품하고 공무원 채용정보를 인척에 알려 준 혐의성 광주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2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동구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 동구에 통보했다. 동구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동구는 이를 근거로 25~27일 사이 시 인사위원회에 동 구 부구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최종 징계는 오는 6월 예정된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동 구 부구청장은 동구 구청장 권한대행 기간인 지난 3월 압력을 행사해 자신 소유 묘목 220그루를 구청에 납품하고, 같은 날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인척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십년감수’ 24일 오전 10시에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에서 시멘트 원재료를 실은 탱크로리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의 육묘장 담벼락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호주기 긴 교차로 보행신호 2회로

광주경찰청, 31곳 ‘중복 보행신호제’ 시범 운영

광주시 북구 삼각초교 입구 등 신호주기가 긴 교차로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호주

기가 긴 교차로의 보행신호를 2회 부여하는 ‘중복 보행신호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적인 신호체계에서는 차량 직진 시 우측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차

량주행신호 1회에 보행신호 1회씩 주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차량 직진신호가 길 경우 횡단보도 대기시간도 늘어나 다음 보행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북구 삼각초교 입구의 경우 총 신호주기 170초 중 차량 직진신호는 114초이며,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37초 1회뿐이다. 37초내에 건너지 못하면 다음 신호까지 133초를 기다려야 하는 셈

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후반에 보행신호를 1차례 더 부여해 보행자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안이다.

광주경찰청은 31개 교차로(동구 설월교 등 4곳, 서구 상무이마트 등 7곳, 남구 신우신협 등 5곳, 북구 고령고 등 9곳, 광산구 비아중 등 6곳)를 선정해 중복 보행신호 체계로 전환했으며, 2개월가량 시범 운영을 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달뜨기 22:22, 해질 19:37, 달지기 08:04

교통안전 유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5/29	보성	맑음	12/27
목포	맑음	15/24	순천	맑음	15/28
여수	맑음	17/24	영광	맑음	13/26
나주	맑음	13/30	진도	맑음	13/24
완도	맑음	15/26	전주	맑음	13/24
구례	맑음	12/29	군산	맑음	14/25
강진	맑음	13/27	남원	맑음	13/28
해남	맑음	13/26	홍산도	맑음	13/20
장성	맑음	12/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남서
남부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남서
남해	남~남서	0.5~1.0	서~북서	0.5	서~북서
서부	남~남서	0.5~1.5	서~북서	0.5~1.5	서~북서
제주	남~남서	0.5~1.5	서~북서	0.5~1.5	서~북서

◇ 출몰

목포	밀물	썰물
	04:20	09:30
	16:19	21:30
여수	밀물	썰물
	10:58	05:01
	23:30	16:52

◇ 주간 날씨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6/1(수)
☀	☀	☀	☀	☀	☀	☀
16/27	17/29	16/28	17/26	16/29	16/28	16/28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해남 화원농협 수사

해남 화원농협이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화원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지난 11일 고소장이 들어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소장은 화원농협의 한 임원이 내부 감사 자료를 토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화원

농협 직원 1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향후 업무추진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원농협은 최근 열린 대의위원회에서 조합장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으며 이 선물비용을 조합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수 기소...부군수 권한대행

경찰이 뇌물을 받고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박철환 해남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직무가 정지됐으며, 양재승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로 박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군수의 비서실장도 알선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기소됐다.

박 군수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일부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장이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박 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 교육감 “직권면직 철회를”

광주·전남 교육감 등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교육감은 “총선으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반시대적·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범의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 총 35명에 대해 직권면직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었다. 현재 교육청별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6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